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OUT OF PLACE  
가제 : 세상 밖에는  
저자 : Jennifer Blecher  
출판사: Greenwillow Books  
발행일: 2019년 6월 4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문학



- \* “어린 시절에 겪는 소외감,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세상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그리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 - 커커스 리뷰
- \* “주인공 코브는 갈 곳을 잃었다고 느끼지만, 독자들의 마음 속에 금방 자리를 잡을 것이다” - 『THE SCANDALOUS SISTERHOOD OF PRICKWILLOW PLACE』의 작가 줄리 베리

열두 살이 될 때까지 태어나서 자란 섬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코브는 제일 친한 친구 니나가 뉴욕으로 떠난다는 소식에 깜짝 놀란다. 이 섬에서 코브의 세상은 엄마와 니나가 전부인데 그 절반이 기약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엄마는 이사는 고사하고 섬 밖으로는 잠깐 나가려고도 하지 않을뿐더러 니나를 만나러 코브 혼자 가는 것도 절대 허락하지 않을 사람이라 코브의 마음은 더 답답했다. 그러니 우승만 하면 뉴욕에 ‘가야만’ 하는 TV 프로그램을 발견한 순간 코브의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한 것도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옷을 만들어서 보내면 나중에 유명한 패션디자이너가 될 만한 후보를 골라 뉴욕의 스튜디오에 초대한다는 광고를 본 코브는 니나도 만나고 지긋지긋한 섬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확신한다. 하지만 좋은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으로 시작된 코브의 생애 첫 야심 찬 도전은 계속 뼈격대고 결국 코브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작가는 나이 고하와 막론하고 누구나 한번쯤 느끼는 감정,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고 다들 잘 사는데 내가 설 자리만 없는 듯한 절망에 젖은 열두 살 소녀 코브가 용기 있게 이 무거운 마음을 털어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다. 현실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생생한 인물들이 코브가 겪는 따돌림과 소외감, 무기력함을 그대로 전하고, 자신이 한 일에 책임 질 줄 아는 어엿한 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코브의 이야기는 따라가며 온 마음으로 공감하고 응원하게 되는 소설이다.

니나의 아빠도 코브의 엄마처럼 예술가다. 두 소녀가 사는 섬에는 아름다운 풍경처럼 멋진 그림을 그리고 특이한 물건을 똑딱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았고 매일 해변 한 쪽에 작은 마켓을 열리면 여름을 보내러 온 외지인들은 이들이 만든 각양각색의 작품들에 큰 관심을 보이곤 했다.

코브의 어머니는 이 마켓에서 사람들이 읽으면 곧바로 눈물이 쏟아지거나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인상적인 글귀를 작은 붓으로 써서 판매했다. 한가한 시간에는 명상과 요가를 가르치기도 하는데, 마을의 작은 연못에 널찍한 매트를 띄우고 그 위에서 마치 딱딱한 바닥에 서 있는 것처럼 어려운 요가 자세로 오랜 시간을 버티는 어머니의 모습은 늘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래서 인지 어머니가 여는 요가 강좌에는 수강생이 넘쳐났다. 하지만 코브는 어머니가 자신에게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감명 깊은 문장이나 정신을 맑게 한다는 그런 활동들을 사실 어머니 자신도 다 믿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가 안쓰럽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못하게 해서 갑갑해 미칠 것 같아도 코브는 어머니를 위해 참고 견디는 편이었다. 대신 니나와 실컷 뛰어놀고, 수영도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다. 유일한 숨통이고 탈출구였던 니나가 뉴욕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코브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화가인 니나의 아버지는 섬의 다른 화가들처럼 예전에는 절벽이며 해변 같은 풍경을 그렸는데, 어느 날부터 독특한 방식으로 니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조각조각 퍼즐처럼 흩어진 것 같지만 모두 합쳐지면 분명 니나의 모습이고, 조각마다 각기 다른 색깔과 질감이 채워진 그림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뉴욕의 유명한 갤러리에 전시까지 하게 된 것이다. 섬을 벗어난다는 사실에 잔뜩 들뜬 니나를 보면서 코브도 뉴욕에 한 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쳤다. 절대 보내주지 않는 어머니를 꺾으려면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와 기회가 있어야만 했다. 그 기회는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났다.

학교에서 지역 봉사활동을 할 곳으로 허름한 중고품 판매점을 배정 받은 코브는 그곳에서 일하는 대학생 조나 언니를 만난다. 옷차림이 특이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못된 여학생들에게 학기 내내 따돌림을 당하고 어딜 가나 낄낄대는 비웃음 소리에 시달리던 코브는 니나도 없어 우울하던 차에 조나 언니와 부쩍 가까워지고, 자연스럽게 언니의 애청 프로그램이라는 ‘크리에이트 유’를 알게 된다. 12세부터 17세까지 누구나 자기가 직접 만든 옷을 보내면 우승자를 뽑는 이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 상도 받고 녹화를 하기 위해 뉴욕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안 코브는 무조건 도전해 보기로 결심한다. 의욕은 넘치지만 패션 디자인은 전혀 모르는 코브의 앞에 또 하나의 기적처럼 안나가 나타난다. 마을 요양원에서 지내는 안나 할머니는 아주 오래 전에 코코 샤넬과 함께 일했을 정도로 솜씨 좋은 재봉사였고, 지금도 작은 방에 재봉틀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옷을 만들고 싶다는 코브의 이야기를 듣더니 기꺼이 가르쳐주겠다고 한 것이다! 학교에 새로 전학 온 짝이라는 조용한 남학생도 코브를 도와주며 같이 응원하자 더욱 힘이 난 코브는 안나 할머니에게 열심히 바느질을 배운다. 하지만 실력은 마음처럼 금방 향상되지 않고, 마음이 급해진 코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고 만다. 새로 만난 이 좋은 사람들을 전부 한꺼번에 잃을지도 모르는 위기를 느끼고 나서야, 코브는 한순간 저지른 무모한 행동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는다. 가장 민감한 시기의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낸 멋진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제니퍼 블레처(Jennifer Blecher)는 노스이스턴 법대에서 공부를 마쳤다. 검사보로 일하다가 현재는 전업 작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자가 출판한 시리즈 『Star Sisters』가 있다.

제목 : THE SHARP EDGE OF A SNOWFLAKE

가제 : 날카로운 눈꽃

저자 : Sif Sigmarsdottir

출판사: Hodder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9년 6월 27일

분량 : 29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프랑스(Casterman), 독일(Loewe) 판권 계약**

**\* “탄탄한 인물들, 배경이 되는 장소에 관한 놀라운 감각, 흡입력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스토리가 모두 합쳐진 환상적인 소설” – 베스트셀러 『Thora Gudmundsdottir』 리즈의 작가 이르사 시귀르다르도티르**

2018년 초,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다. 수백 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수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무려 8,7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프로필, 생일, 거주지, 메시지, 뉴스피드 등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대선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두려움을 일으켰다. 미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우리의 취향을 누군가가 분석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맞춤형 광고와 캠페인을 개발할 수 있다는 섬뜩한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런던에서 소설가로 활동 중인 저자는 내부 고발자의 등장으로 페이스북 스캔들이 단순한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날 때까지 끈질기게 취재를 이어간 움저버 지의 여기자 캐롤 캐드웰레어의 활약에서 큰 영감을 얻어 이 소설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엄마, 할머니와 셋이서 런던에 살던 한나는 극심한 정신 질환에 시달리던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빠가 있는 고향 아이슬란드로 쫓기듯 돌아간다. 아빠가 운영하는 작은 신문사에서 기자로 취직 한 한나가 갑자기 바뀌어버린 환경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세계에서 살인 사건 발생률이 가장 낮은 아이슬란드에서 40대 남성이 사체로 발견된다. 처음부터 이 사건에 매료된 한나는 아빠의 저지에도 한 대학의 데이터 분석 연구소에서 일하던 평범한 남성을 누가, 왜 살해했는지 밝혀 내기로 결심한다. 런던에 사는 20대 초반의 인스타그램 스타, 이모젠 콜린스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차갑게 쌓인 눈이 단단히 굳고 갈라진 틈에서 발견된 의문의 사체에 얽힌 이야기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죽음보다 더 놀라운 소셜 네트워크와 심리 조작의 세계로 향하기 시작한다.

이모젠의 삶은 대학 입학 직후, 2년여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옷장에는 유명 브랜드에서 받은 새 옷들이 더 걸 곳이 없을 만큼 넘쳐나고 구두, 가방 모두 신상품으로만 방안에 차곡차곡 진열되어 있다. 화장품은 물론 테이블, 소파까지 이모젠이 먹고, 쓰고, 입는 모든 것이 전부 최신 유행하는 물건들로 채워져 있다. 모두 ‘비스트’를 만난 후 일어난 변화였다. 이모젠의 역할은 하루에 두

번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피드를 업로드하는 일이다. 런던 구석구석에서 철저한 기획에 따라 촬영된 사진에 필요한 멘트를 추가해서 적절한 시간에 올리면 거의 백만 명에 육박하는 팔로워들이 꼭 누른 ‘좋아요’가 순식간에 수천 개로 늘어난다. 세상에 근심이나 걱정 같은 건 없는 사람처럼, 잡티 하나 없이 관리된 피부로 환하게 웃거나 장소에 따라 분위기 있게, 하지만 우연히 찍은 사진처럼 자연스럽게 찍힌 이모젠의 모습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이다.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는 대중에게 관심을 받는 것,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매일 선명하게 체감하는 그 기분이 진한 커피를 마실 때보다 더 큰 활력을 심어주고 카페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독성 있다는 사실을 이모젠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실감한다. 하지만 이모젠은 인기와 관심만 있으면 행복한 바보가 아니었다. 하루 아침에 소셜미디어 스타가 되기 전에는 저명한 심리학자가 되어 런던 어느 곳에 상담소를 내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려면 써야 할 논문도 많고 공부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하지만 비스트와의 만남 이후, 룸메이트가 두 달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을 단번에 내고 고급스러운 택시 하나를 들일 만큼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서 꿈도 희미해지고 완벽한 외모와 이미지와 달리 초조함과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모젠도 느끼고 있었다. 비스트가 자신을 비롯해 런던에 사는 무수한 젊은 여성들의 젊음과 아름다움,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을 허영심과 유명해지고 싶은 감정에 파고들어 악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을 헤집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비스트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

세찬 바람과 사방이 눈으로 가득한 레이카비크의 길고 어두운 밤과 잠깐씩 드러나는 거울처럼 투명한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매개로 한나와 이모젠이 마침내 한 접점에서 만난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한 번씩 교차되고, 각 장마다 각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한 사진과 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를 개수, 그리고 그 사진과 글이 어떤 맥락에서, 무슨 목적으로 촬영되고 작성되었는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자세히 소개되는 구성도 매우 흥미롭다.空空 언 들판 한 가운데에서 발견된 사체는 아이슬란드 대학교에 작은 연구소로 운영되던 ‘데이터사이크’ 소속 연구원으로 밝혀지고, 경찰 수사 결과 그가 런던에 있는 데이터 분석 회사와 함께 일해왔으며 런던 아날리티카라는 그 업체는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 남긴 각종 데이터를 모아 일종의 심리 프로파일링을 거쳐 각 상품 별로 그 물건을 구입할 확률이 가장 높은 타겟을 찾는 곳으로 드러난다. ‘행동학적 마이크로 타게팅’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약점이나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바람, 꿈, 혹은 두려움을 찾아내서 마케팅 수단으로 교묘히 활용하는 것이다. 이모젠을 이곳에 처음 소개하고 일자리를 얻어준 비스트의 존재는 누구일까? 완벽함 뒤에 감추어진 최악의 추악함,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잔혹한 싸움을 페미니즘, 소셜 미디어의 폐해와 함께 다룬 독특한 스타일러다.

#### <저자 소개>

시프 시그마스도티어(Sif Sigmarsdottir). 아이슬란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리딩 대학교에서 아동 문학을 공부했다. 현재 런던에서 작가 겸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I Am Traitor』와 이슬란드 문학상 후보에 오른 『Freya's Saga』 등이 있다.